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젬세팅 기법의 다채로운 독창성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설립 이래 지속해온 특징적인 탁월한 스타일을 향한 탐구 정신을 완벽히 구현합니다.

- 바쉐론 콘스탄틴의 젬세팅 장인은 인그레이빙 장인, 기요셰 장인, 에나멜링 장인과 적극적으로 협업합니다. 시대를 초월한 걸작은 장인들의 교류를 통해 탄생합니다.

"뛰어난 수작업 기술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마되는 것입니다. 같은 작업을 무한히 반복하는 것은 분명 바로 이 탁월함을 추구하기 위한 대가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젬세팅 장인은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고 단언합니다.

"모든 젬세팅 장인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명처럼 저마다 다른 스타일을 발휘합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1755년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이후 메종의 특징으로 손꼽히는, 탁월한 장인 정신을 향한 탐구는 젬세팅 기법에 고스란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메종은 시계가 웨이스트코트의 포켓을 벗어나 진정한 워치메이킹 주얼리이자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아이템, 그리고 새로운 패션 액세서리로 자리잡았던 19세기 초부터 젬세팅 기법을 마스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펄, 오닉스, 가넷 등으로 베젤의 곡선을 강조하고 꽃잎을 구현했으며, 에나멜 미니어처나 섬세한 인그레이빙 장식이 함께 더해졌습니다. 진귀한 스톤과 하드 스톤은 점차 윤곽을 강조하는 소재에서 벗어나 그 자체가 하나의 장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바쉐론 콘스탄틴의 전문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은 다양한 예술 공예 기법을 결합한다는 점입니다. 젬세팅 장인들은 인그레이빙 장인, 기요셰 장인, 에나멜링 장인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이와 같은 교류를 통해 젬세팅, 인그레이빙, 조각 기술, 에나멜링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결합한 Metiers d'Art 파블뢰 오너멘츠 Fabuleux Ornements 시리즈와 같은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젬세팅 기법은 독특한 빛을 선사하며 거의 초자연적인 수준에 가까운 감성을 선사합니다. 이 기법은 유서 깊은 공예 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지식을 요구하며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원하는 스타일과 빛 효과에 따라 프롱, 베젤, 스노우, 비즈, 파베, 미스터리 세팅으로도 알려진 인비저블 세팅에 이르기는 다양한 기술을 마스터해야 합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젬세팅 장인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젬세팅 장인은 저마다 다른 스타일을 발휘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명과도 같죠. 숙련된 안목을 지닌 사람만이 각 장인이 구사하는 기법의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큰 변화 없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승된 장인 기법과 도구를 활용합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젬세팅 장인은 선대 장인과 마찬가지로 독창성, 손재주, 헌신적인 열정을 바탕으로 조각용 끌, 비즈 도구, 조각도, 푸셔와 같은 도구를 직접 제작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도전 과제를 부여하면서 어제보다 더, 그리고 그저께보다는 훨씬 더 잘해내려 하죠. 마치 대회에 참가하는 운동 선수와 같이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동시에 빠르게 완성해야 한다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 해요. 쌍안 현미경에 눈을 가져다 대는 순간 시간 관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예술적인 조화를 추구하려면 뛰어난 손재주뿐 아니라 예리한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쌍안 현미경에 눈을 가져다 대는 순간 시간 관념이 완전히 사라져버리죠. 예술적인 조화를 추구하려면 뛰어난 손재주뿐 아니라 예리한 안목을 갖추어야 합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바쉐론 콘스탄틴의 주얼리 워치 곳곳에서는 스타일에 관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종종 트렌드를 한발 앞서 독창성이 한층 풍성하게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구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 데코 시대에도 메종은 전형적이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때로는 유쾌하기까지 한 주얼리 워치를 선보이며 쉽게 만나볼 수 없는 대담한 스타일을 선보였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 마스터 젬세팅 장인은 이렇게 전합니다. “스노우 세팅을 준비할 때면, 어린 시절 작은 색종이 도트로 캔버스를 꾸몄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직경의 스톤을 다채롭게 활용하죠.”

모든 장인은 메종의 작업장에서 한 팀이 되어 자유로운 표현의 장을 펼쳐 보입니다. "기요셰 장인, 에나멜링 장인, 인그레이빙 장인, 젬세팅 장인, 워치메이커가 계속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기회입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타임피스가 지닌 강점과 대담한 스타일 측면에서, 엄청난 자유를 바탕으로 독창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메종의 진정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칼리스타 Kallista 출시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총 170캐럿에 이르는 18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칼라니아Kallinia 워치를 선보였습니다. 이듬해에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커팅인 플레임 컷을 도입한 Metiers d'Art레이디 칼라 플레임Lady Kalla Flamme 워치를 선보이며 또 하나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스노우 세팅을 준비할 때면, 어린 시절 작은 색종이 도트로 캔버스를 꾸몄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젬세팅 기법

젬세팅 장인은 접착제를 사용하거나 용접을 통해 진귀한 스톤을 메탈에 부착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베이스에 구멍을 뚫어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스톤에 맞게 조정한 다음 메탈을 밀어 넣어 고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장인이 원하는 미학적 효과에 따라 다양한 젬세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롱 세팅

이 기법은 라운드, 헤링본, 뾰족한 디자인의 끝을 갖춘 다양한 길이의 프롱 2~8개로 구성된 얇게 접힌 메탈 막대로 스톤을 감싸는 방식입니다. 일부 모델에서 젬스톤은 "샤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케이지 위에 세팅됩니다. 시계보다는 주얼리에 더 적합한 프롱 세팅 기법은 1948년의 레퍼런스 10353, 그리고 1964년의 레퍼런스 11446과 같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프라이빗 컬렉션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베젤 세팅

Les Cabinotiers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 스카이 차트 - 레오 주얼리Minute Repeater Minutes Tourbillon sky chart - Leo Jewellery 타임피스에 사용된 가장 유서 깊고 견고한 세팅 기법입니다. 이는 젬스톤 주위를 가느다랗고 긴 금속 조각으로 둘러싼 다음 상단 부분을 뒤로 밀어 넣어 가장자리를 살짝 덮습니다. 메탈이 젬스톤 전체를 둘러싸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세미 베젤 세팅이라고 칭합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레일 세팅

Traditionnelle 투르비용 주얼리Tourbillon jewellery 시계의 다이얼에서 특히 눈에 띄는 이 유형의 세팅은 두 개의 메탈 레일 사이에 스톤을 나란히 세팅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라운드, 타원형, 사각형, 바게트 컷 스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즈 또는 파베 세팅

동일한 사이즈의 작은 스톤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기법입니다. 장인은 메탈 베이스를 파낸 홈에 젬스톤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파베 세팅한 다음 작은 메탈 비즈로 젬스톤을 제자리에 고정합니다. 이는 19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킹 칼라King Kalla 베젤과 같이 베젤 세팅에 활용하기에 이상적입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스노우 세팅

다이아몬드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다양한 직경의 다이아몬드로 전체 베이스를 덮습니다. Traditionnelle 문 페이즈 시계의 다이얼에도 이와 같은 유형의 세팅이 적용되어 0.7mm에서 1.5mm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10개의 직경을 갖춘 548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무작위로 배치하여 빛을 받는 순간 완벽하게 동화될 만큼 화려하게 반짝입니다. 이 세팅 기법은 미크론 단위에 가까울 만큼 세심한 스톤 선별 과정을 요하는 만큼 가장 까다로운 기법으로 손꼽힙니다.

인비저블 세팅 또는 미스터리 세팅™

1930년대에 두 개의 특허를 획득한 이 기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프롱이나 메탈 없이 젬스톤을 세팅하는 방식입니다. 젬스톤을 레일 위에 빈틈없이 넣을 수 있도록 젬스톤 베이스에 홈을 내는 방식으로 커팅합니다. 이와 같은 전체 표면을 뒤덮은 젬스톤이 별도의 고정 수단 없이도 제자리에 세팅된 것처럼 연출할 수 있으며, 이를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전체에 565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Malte 레귤레이터 투르비용 하이 주얼리 인비저블 세팅Regulator tourbillon high jewellery invisible-setting 워치입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시계 셀렉션

옐로 골드 여성용 쿼터 리피터 포켓 워치(1812년)

1812년에 출시된 이 여성용 워치로 젬세팅된 타임피스 중 바쉐론 콘스탄틴 프라이빗 컬렉션에서 가장 오래된 모델입니다. 19세기, 메종은 워치메이킹 메커니즘과 동일한 수준의 장식 기법이 돋보이는 타임피스를 제작하고자 진귀한 스톤, 세미 프레셔스 스톤, 심지어 반원 진주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팅은 또한 체이싱 처리한 오목한 모티프와 케이스백의 "밀푀유" 인그레이빙, 또는 골드 다이얼의 기요셰 작업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전체에 젬세팅한 옐로 골드 칼리스타 손목시계(1979년)

1979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특별한 요청에 따라 그리스어로 “최상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칼리스타Kallista 시계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 레이몬드 모레티Raymond Moretti와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회성으로 출시된 모델이었습니다. 골드 주괴를 조각하여 총 130캐럿에 이르는 118개의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 작품은 당시에 가장 높은 가격이 책정된 손목시계였습니다. 의뢰인 커플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이 칼리스타Kallista 워치는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된 케이스백에 남성과 여성 인물을 골드 아플리케로 재현하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Les Cabinotiers 그랜드 컴플리케이션 - 바쿠스Bacchus (2022년)

타임피스의 핑크 골드 케이스에는 루비로 구현한 포도송이가 수놓인 포도 나뭇잎이 인그레이빙되어 있습니다. 인그레이빙 장인과 젬세팅 장인의 협업으로 완성된 케이스 외부에서 마치 생생히 살아 숨쉬는 듯한 조형 모티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마스터 장인의 교대 작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젬세팅 장인은 인그레이빙 장인으로부터 케이스를 전달받아 작업한 다음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위해 인그레이빙 장인에게 케이스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두 명이 함께 작업하며 점진적으로 디자인을 완성했습니다.

메종의 예술 공예
빛의 장인, 마스터 젬세터

VACHERON CONSTANTIN
GENÈVE

Metiers d'Art 레이디 칼라 플레임 손목시계(2010년)

2009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전설적인 칼리스타Kallista 출시 3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총 170캐럿에 이르는 186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운 칼리나Kallinia 워치를 선보였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새로운 다이아몬드 커팅인 플레임 컷을 도입한 Metiers d'Art 레이디 칼라 플레임Lady Kalla Flame 시계가 출시되었습니다. 주얼리 분야에서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독점 기술로 손꼽히는 이 다이아몬드 커팅은 20년간 새로운 커팅을 승인하지 않았던 미국 보석 감정 연구소 Gemological Institute of America의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설립되어 270년 가까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속해온 시계 제조사로, 여러 세대를 거쳐 숙련된 장인들을 통해 탁월한 워치메이킹의 유산과 세련된 양식의 정교한 시계 제조 기술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대표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창적인 기술, 미학적 완성도, 최상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으로 품격 있는 타임피스를 제작해오고 있습니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독보적인 전통과 혁신의 정신으로 고유의 가치를 이어오며, 패트리모니, 트래디셔널, 메티에 다르, 오버시즈, 피프티식스, 히스토릭 그리고 에제리 컬렉션을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메종은 안목 높은 시계 애호가들에게 "캐비노티에"를 통해 특별한 주문 제작 시계뿐만 아니라, 레 컬렉셔너로 구성된 빈티지 타임피스를 경험할 수 있는 진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VacheronConstantin
#OneOfNotMany

VACHERON CONSTANTIN
GENÈVE

ONE OF
NOT MANY.